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19. 3. 25.(월) 총 5매(본문3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원만, 사무관 서정석, 주무관 김영민 • ☎ (044) 201-4253, 4206	
	교통안전공단 드론안전처	담 당 자	• 처장 이종원, 차장 이호찬 • ☎ (054) 459-7930, 7932	
보 도 일 시		2018년 3월 2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25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미세먼지 측정도 드론으로...공공 분야 드론 인력 키운다 **-교통·산림·농업 등 10개 신규 분야 300명 임무특화형 교육 실시** **-가상현실(VR) 통해 화재·오염·특수지형 재현...운용능력 향상 기대**

* (가상사례) ○○기관 ㄱ씨는 드론을 업무에 접목하고 대대적으로 활용해보고 싶어 드론의 조종교육을 받았으나 아직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는 없었다.

- 국토부 임무특화교육을 받은 이후 다양한 소프트웨어(S/W)와 접목, 고난도 임무비행 조종, 유사한 업무활용 기관과 상호학습 효과를 통해 당초 생각했던 수준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..

☐ 미세먼지 측정 드론을 비롯한 안전·치안·국방 등 다양한 공공분야의 드론을 운용하는 인력의 현장운용 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 및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권병윤)은 공공분야 드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‘2019년도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’을 착수한다고 밝혔다.

○ 이 사업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(‘17.12월)에 따라 초기시장으로 육성 중인 공공분야의 드론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처음 편성·착수한 사업이다.

☐ 임무특화형 교육이란 공공분야에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기본 비행교육에 영상편집·가공, 재난지역 특수 비행 및 고난이도 시설물점검 등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직무교육의 일환이다.

- 국토부는 사업용 드론시장의 초기수요를 국방·치안·환경·안전·측량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'21년까지 4천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.
 - 그러나 드론 조종이 어렵거나 획득한 영상을 가공하려 해도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에 즉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실정이다.
 - 이에 국토부는 현장에서 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때 요구되는 능력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일종의 신산업 특화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다.
- 임무특화 교육은 전통적인 공공업무와 드론이라는 다재다능한 업무수단 간 융합을 통해 효과적·효율적으로 업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.
- 교육의 순서는 기본소양인 드론 비행조종교육*을 우선 실시하고, 조종능력을 갖춘 대상자에 대해 소프트웨어(SW) 조작 등 고도화된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임무특화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.
- *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라 항공안전 기본사항의 습득여부 및 드론을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(정확한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으로 운전면허와 유사)
- 임무특화교육 과정은 교육대상 기관의 소속직원(업무전문가), 드론 전문교육기관의 비행전문가, 교통안전공단의 교육전문가 등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개발될 예정이다.
 - 특히, 가상현실(VR) 콘텐츠를 활용해 화재·오염·특수지형 등 현실에서 갖추기 어려운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고 이종산업과의 융합도 기대된다.
- 작년은 소방·경찰·해경·국토조사 등 4개 분야의 임무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100여 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면,
- 올해는 국가기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교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 분야는 2배 수준인 10개로 확대하고, 교육대상 인력도 3배 수준인 300여 명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.

- 특히, 미세먼지 측정 등 국민적 기대감을 안고 있는 환경분야를 비롯한 교통·산림·농업분야 등이 올해 처음으로 임무특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.

【2019년 임무특화 교육 분야】



- 기본소양 배양을 위한 단순 비행조종교육은 기존에 많은 교육을 실시한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협력·추진하는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상생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.

* 전문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의 수요, 지역별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로 선정 예정

-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은 “작년에 '19년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드론활용이 확대되며 당초 예산규모보다 교육수요가 10배 이상 제출되는 등 드론활용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”며,

* (당초) 100여명 교육 예정→(수요조사) 1,000여명 조사→(조정) 300명 규모로 조정·실시

- “올해 다양한 공공분야 기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드론시장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나가겠다”는 사업추진 방향을 소개했다.
- 또한, “올해 사업이 작년 1단계에 비해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는 1.5단계로 보고 있고, 현재 국토부의 교육인프라로 구축 중인 복합 교육훈련센터가 내년에 준공되는 대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단계로 확대·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서정석 사무관(☎ 044-201-4253) 및 김영민 주무관(☎ 044-201-4206) 또는 교통안전공단 이호찬 차장(☎ 054-459-793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2019년도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분야 및 내용

교육분야	대상기관	교육인원	활용현황	임무특화교육 내용
① 환경감시	환경부 등 7개 기관	35명	환경단속	대기·수질오염물질 배출 감시
② 환경조사	국립생태원 등 4개 기관	17명	자연환경조사	환경분야 생태조사(자연환경조사, 식생 및 지형조사 등)
③ 해양감시· 관리	해양수산부, 관세청 등 3개 기관	28명	항만순찰, 연안지도·단속	해양분야 감시·단속(드론 활용 항만 순찰·감시, 연안지역 지도·단속 등)
④ 재난·재해 대응	한국남동발전 등 2개 기관	11명	재난현장 모니터링	재난(화재)현장 모니터링 및 잔불 탐색
⑤ 경계·감시	법무부 등 5개 기관	33명	교정시설 경비 및 점검	시설 경계·감시(시설 순찰, 이상물체 확인 및 식별 등)
⑥ 시설물 점검·관리	국토교통부 등 7개 기관	41명	도로시설물 및 취약구간 점검	도로분야 시설물 점검·관리(도로, 교량, 비탈면 등 점검)
⑦ 교통관리	한국도로공사 등 2개 기관	17명	교통위반단속 및 사고조사	교통분야 단속·사고조사(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·계도, 교통사고 현장 조사 등)
⑧ 산림 재난 대응·예찰	산림청 등 2개 기관	28명	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예찰	산림재난 대응·예찰(산림 재난 현장 대응 및 피해지 조사 등)
⑨ 농업 예찰·방제	농촌진흥청 등 4개 기관	17명	농업 방제 및 방제교육	농업 예찰·방제(병해충 예찰, 농약·비료 등 살포)
⑩ 지형정보 조사	한국토지주택 공사, 지자체 등 17개 기관	73명	지형정보조사	지형정보조사(항공촬영, 토지이용 현황 조사 등)
37개 기관		300명		

참고 2

2018년도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 관련 사진



비행점검 및 실비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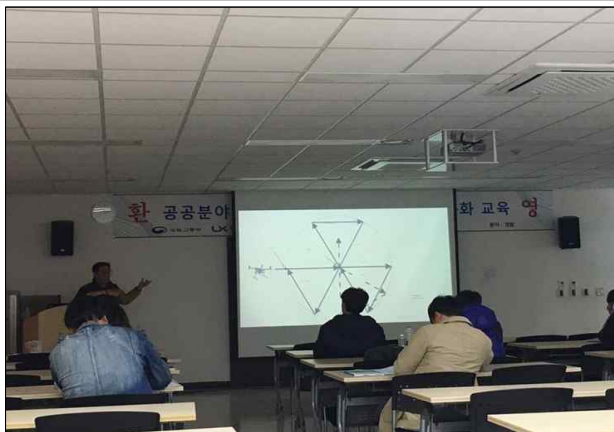
장거리 비행 및 비가시권 비행 실습



자동항법비행 실습



2기체 비행



수색패턴 기초교육



교육 수료식